

사장실 없고 결재는 직원자리에서 각 부서장이 인사권 행사 전 임직원 8시 출근, 책 읽어야 수시로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

㈜상지피앤아이를 방문해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왜냐하면 사장실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나 혹은 눈에 띄는 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지피앤아이의 이창래 사장은 고객이 부르면 가고, 직원들이 결재할 일이 있으면 직원 자리로 가면 되기 때문에 사장실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지만 이 사장은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마라톤도 하고, 끊임없이 생각도 하고, 고객을 찾기도 하고, 직원들을 만나기도 한다.

창립 20주년, 새롭게 여는 2004년

상지피앤아이는 1984년 상지문화사로 출발, 1990년 출판사를 등록하고 인쇄기를 도입해 본격적인 인쇄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시대조류에 맞춰 1995년 필름 출력기를 도입해 영업, 기획, 편집, 출력,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하는 업체로 성장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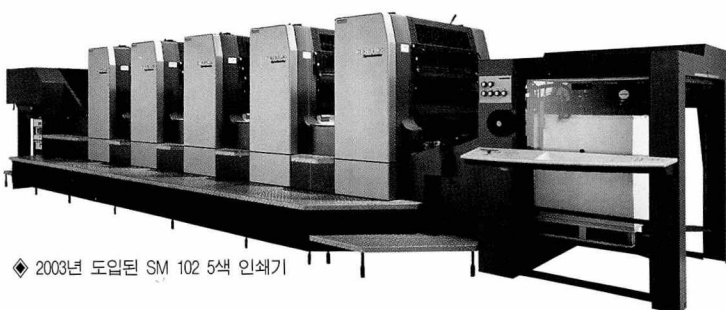
상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증원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한편, 2002년에는 (주)상지피앤피라는 지류전문업체도 설립해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는 하이텔베르그 SM102 5색 인쇄기를 도입하는 한편, 오는 3월에는 하이텔베르그의 CTP 프로세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투자는 고품질인쇄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장비의 교체와 함께 임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자극하고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 목표하는 일을 성취하지는 데도 목적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변화와 마인드 자체를 바꾸어 나가자는 취지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올 들어 상지의 변화는 또 있다. 일단 출근시간을 8시로 앞당겨 남보다 먼저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결국 아침형 인간이 되자는 뜻에서 전 직원이 출근시간을 앞당겼으며, 이것은 사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과의 인연으로 인해 방문 고객들에게는 이 책도 선물로 주고, 스스로들

실천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초에는 파주출판단지 내에 파주지사(출력실)를 오픈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지금은 영업적인 측면보다는 출판사와의 업무제휴로 인해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차 영업력을 강화해 앞으로 입주할 업체들에게까지 서비스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03년 도입된 SM 102 5색 인쇄기



◆ 이창래 사장



◆ 격월로 외부 강사를 초청해 실시하고 있는 강연회



◆ 장기근속자에게 주는 혜택 중의 하나인 해외연수(2003년 중국상해)

소그룹화 한 독특한 경영방식

상지피앤아이는 독특한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지와 같이 인쇄토탈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많다. 그러나 경영방식은 다르다. 그것은 각 부서를 소그룹화해 별도의 회사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조직 구성도를 보면 마케팅사업부와 영업지원부를 하나로 하고, 인쇄사업부, IP사업부(출력), 디자인부, 총무부로 나뉘어 상호 협력하거나 거래하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인 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일과 똑같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외주를 줘도 상관없다.

이는 내부적인 일에도 다른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운영된 각각의 부서는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게 된다. 그래서 부서장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

그리고 자율적인 경영을 위해 인사권까지 주고 있어 부서장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다.

이 시스템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었지만 직원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또한 책임감까지 갖게 돼 이미 소기의 목적은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다.

나눔문화 직접 실천하는 기업

상지는 나누는 기업이 되고 싶어한다. 직원간에도 정을 나누고, 거래처와도 신의를 나누고, 학계에는 장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요즘 책읽기가 한창이다. 독서열이 낮아 공중파에서도 캠페인을 벌인 정도이다. 그러나 상지는 책을 좋아하는 이창래 사장으로 인해 월1회 서점방문을 하는 날도 생겼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읽고 싶은 책을 구입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그래서 매월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해 20여권씩 구입하기도 하며, 다 읽은 책은 회사 휴게실에 비치해 다른 직원들이나 고객들에게 빌려주기도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책을 좋아하는 고객들에게는 책 선물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출판업이 잘돼야 인쇄업도 잘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우선은 책 읽는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닌가.

2003년부터는 인쇄관련 대학에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4개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올해는 더 확대할 방침이다. 몰래한 일이 밖으로 알려져 본래의 뜻이 퇴색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이창래 사장은 국내에서의 기부문화가 좀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2003년부터 임직원들이 함께 마라톤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시름에

잠긴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통일마라톤대회에서는 코스 완주 후 사장과 임직원들이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이 있는 직장, 신이 나는 회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을 올리기 위해 상지는 토요일 격주 휴무와 장기근속자에게는 연차휴가, 경조휴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사원 표창과 포상을 수여하는 한편 각종 경조금도 지불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 생일 및 직원 가족 생일에는 케이크를 보내 소속감과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법인회원으로 헬스클럽과 수영장에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외부강사 초청 강연도 올해부터는 격월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3일에는 인쇄정보센터 강당을 빌려 강연회를 가졌으며, 오는 2월22일에는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강연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강연회는 급변하는 사회정세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개인 소양 함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식 공유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줌으로써 전문을 넓히고 애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윤재호 부장〉